

요루미야 시키 《두 사람의 싸움》의 당신 시선 메모입니다.
녹음 데이터 시청 후 읽어주세요.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일로 얻게 된 '시키를 쪽 빼닮은 인형'.
복슬복슬한 것에 약한 당신은 그 인형을 그의 분신처럼 귀여워했다.
그러나 분신의 '본체'인 시키는 질투심을 불태우고 있었고……, 기어이 오늘
아침에는 싸움으로 발전.
이대로면 '휴일 내내 집 데이트'를 보내기로 했던 즐거운 일정이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당신은 일단 냉정해지기 위해 시키와 거리를 두고 근처
카페로.

커피향을 느끼며 서로의 주장을 정리해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시키의 분신이니까 귀여워하고 싶은' 당신.
'좋아하는 선배가 나 이외의 존재를 쓰다듬는 것이 싫다'는 시키.
싸움이라고 해도 원인은 동일한 애정의 엇갈림.
이래서는 그냥 바보커플 아닌가…….
스스로에게 조금 어이가 없으면서도 점점 뺨이 느슨해진다.
지금쯤 시키는 혼자 빼져 있겠지.
쳐져 있을 귀를 상상하니 사랑스러움이 북받쳐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오자마자 떨리는 스마트폰.
시키에게서 온 연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확인했다.
『지킴이 센서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알림을 본 당신은 '분신'의 본래의 용도를 떠올렸다.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개발된 신제품.
내장 센서가 어린이의 울음소리나 애완동물의 신음소리를 감지하면 이렇게
알려주는 뛰어난 제품.
시키의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같이 만들기로 했던 오므라이스에 혼자 도전하다가 다친 것일지도 모른다.

당황하던 당신은 그대로 지킴이 앱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인형에는 소형 카메라도 달려 있어 원격 조작으로 주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비춰진 시키의 모습.
귀나 꼬리가 축 처져 있긴 하지만 부상은 없는 것 같아 일단 안심했다.
아무래도 빼진 시키의 슬픈 신음소리에 센서가 반응해 벼린 것 같았다.

엿보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에 앱을 닫으려고 했는데,

『귀 뒤쪽도 탄력있고!』

인형을 상대로 진심으로 분노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 무심코 웃음을 터뜨리는 당신.

확실히 시키의 귀는 폭신풍신하고 탄력감 있다.

게다가 인간과는 조금 다른 질감의 폭신함으로 밤하늘을 녹여낸 듯한 신비로운 색의 머리. 그 머리와 귀 사이의 경계선 부근은 부드러운 솜털처럼 되어 있어 특히 기분이 좋다.

이 주변을 주무르듯이 만져주면 시키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

개과(?)인데도 가르릉 우는 듯한 모습으로 부비적대며 어리광을 부려온다.

꼬리도 두툼하고 적당히 무게감 있고, 생각보다 힘이 세고,

너무 흔들거릴 땐 맞으면 꽤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기분 좋지…….

그렇게 차례차례 좋아하는 감촉이 떠올랐다.

무엇보다 쓰다듬었을 때 시키의 반응.

기쁘게 흐물거리는 표정이나 기분 좋은 듯 새어나오는 달콤한 숨소리를 좋아하는 당신.

『『보고 싶다.』』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을 느낀 두 사람.

'분신' 너머가 아닌 '나'를 향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당신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해 후에는 최고의 휴일 데이트를 만끽했다고 합니다♡